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안 제시

#### 전북도 자치경찰위, 경찰제도발전위 발표 환영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등 답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전일 발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면 시행했으나, 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마자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발빠르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참여를 결정해 행안부에 이원화모델 참여 의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전북에향운동본부 초청강연 시 전북의 이원화 참여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힘을 보탤다.

이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에 출범한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주민의 뜻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죄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역특색과 실정이 반영된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형 모델은 주민참여 없이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군이 참여하는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2일 부안군 직소폭포에서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 현장 답사에 나선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강태선 위원 등 민간위원들이 답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새만금 잼버리 D-110

## 정부지원회 민간위원, 현지 답사

#### "다양한 경험·전문성 활용 적극 지원할 것" 입 모아 김관영 도지사, "성공 개최토록 식견 모아달라" 당부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행사 개최 110여일을 앞두고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 민간위원들은 12일 부안에 있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잼버리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과 지난 3월, 제2차 정부지원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시안들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모집 및 홍보현황, △참가자 입·출국 및 숙소, △행사운영 및 프로그램, △시설조성 추진현황 등 분야별 준비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잼버리 경관현터에서 시설조성 현장브리핑,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축현황 및 고사포 영외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위원들에게 "휴먼과 녹색, 글로벌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가 상생 융합하게 될 새만금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태선 위원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조직위 공동위원장) "지난해 22년은 대한민국 스카우트 연맹 출범 100주년이었습니다"며 "올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재까지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통 및 내부도로 조성 등은 완료됐으며, 대집회장,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도는 14개 시군과 전북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잼버리 콘텐츠 신축현황 및 고사포 영외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위원들에게 "휴먼과 녹색, 글로벌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가 상생 융합하게 될 새만금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 '전라북도의회' 제82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발간제 82호'가 발간됐다.

제82호에는 지난 2~3월 열린 제397회 임시회와 제398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제397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의원들은 사과 등 전복산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청년인구정책의 효율성 제고, 광역교통망구축, 말산업 육성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및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과 학교폭력 방지대책 마련, 노후아파트 관리정책, 최종중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제397회와 398회 임시회기중 제·개정된 조례 37건과 건의·결의문 12건도 정리됐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와 홀로사는 노인 보호조례, 해양유치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됐다.

소식지에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칼럼이 게재됐으며, 오는 5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8월 개최되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숫자로 살펴봤다. 도의회 홍보채널인 유튜브 '어썸전북'도 소개됐다. 어썸전북에는 도정질문과 5분발언, 현장의정활동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재훈 기자

### '장애인 권리선언·포용적 실천방안'

#### 전주시의회, 독일 디아코니아 관점 중심 권리보장 모색

전주시의회는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남속북지회(위원장 동서학사서학,경희·2등)과 박선진(도시건설위원회, 전북, 인후1·2, 금암·2등) 의원의 주최로 독일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의 의장과 국장이 참석해 독일의 장애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디아코니아는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웃 봉사라는 의미이며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 전역에 자리잡고 있다.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로베르트 바흐트 의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구를 강조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 과정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네 단정어 국장은 "장애인들이 특정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소속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 김미아 다문화지원팀장, 김덕원 한독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추진위원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논의를 펼쳐졌다.

/김영태 기자

##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여행

# 전북 장수 누리파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장수누리파크 | 063-352-5660

NAVER 장수군 검색